

# 기독교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소고(小考)

강춘근\*

## 논문 초록

본 논문은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의 문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고찰한 글로, 기독교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윤리적 의사결정 토대와 의사결정 지침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있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기독교 사회복지 윤리의 필요성을 두 가지 측면 즉, 기독교 사회복지계의 현실적인 측면과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가치의 독특성 측면에서 제기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를 기독교 사회복지가 차지하고 있는 독특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기독교 윤리의 틀 안에서 성격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또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의사결정 원칙과 의사결정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윤리적 의사결정 원칙과 지침 검토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과정을 통해 기독교 사회복지 윤리실천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가를 항상 점검하고, 말씀과 실천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기독교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 윤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에 합당한 행동으로 사회복지 상황에 개입해야 하며 이러한 개입은 주어진 상황을 조율하고 분석하고 책임적인 자세로 적용되어야 한다. 끝으로 기독교 사회복지 윤리를 실천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과 함께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핵심주제어:

기독교 사회복지, 기독교 사회복지윤리, 사회복지윤리, 윤리적 의사결정과정, 윤리적 딜레마

---

\* 기독교술동역회(DEW) 실행위원, kang3394@hanmail.net

I. 들어가는 말

II. 기독교 사회복지와 윤리 연구의 필요성

1. 기독교 사회복지의 본질과 목적
2. 기독교 사회복지윤리 연구의 필요성

III. 기독교 윤리와 사회복지실천 윤리

1. 기독교 윤리의 가치와 특징
2.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윤리

IV.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의사결정 토대와 의사결정과정

1. 윤리적 의사결정의 토대
2.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V. 기독교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윤리에 대한 방향 모색

1. 기독교 사회복지활동의 기본 가치
2. 기독교 사회복지윤리 실천을 위한 적용과 방향

VI.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가치로 삼고 실천하는 학문이며, 또 사람들의 안녕(well-being)을 추구하는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실천행위로 나타난다. 이러한 행위는 인간의 삶의 전 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모든 사람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삶을 위한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의 방법과 목적을 향하여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는 가치를 기초로 하여 윤리적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다른 전문직보다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직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뿐 만 아니라 실천 현장에서도 올바른 윤리적 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윤리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의는 사회복지의 전문성 문제 뿐 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발전과 사회복지 제도의 개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인권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실천 윤리에 대한 고민이 겨우 학문적 관심으로 주로 미국 중심의 학술지와 교과서가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윤리가 사회복지계의 고유 영역으로는 자리를 못잡고 있으며, 또 사회복지윤리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sup>1)</sup>.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학계는 아직도 사회복지학의 발달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윤리에 대한 논의와 연구의 역사가 매우 일천하다고 평가되고 있다(김기덕, 2004: 40)<sup>2)</sup>. 또 사회복지윤리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가 빈약하다 보니 사회복지현장은 말할 것도 없다.

한편 오늘날의 사회복지가 국가의 중요한 제도와 서비스로 발전한 데는 서구사회에서 기독교적 가치관과 교리 실천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것은 역사적

- 1) 국내에 소개된 사회복지윤리와 관련한 참고도서는 다음과 같다. 양옥경 외 11인(1993), 고수현(2002), 김상균·오정수·유채영(2002), 김기덕(2002), 이호선(2003), 양옥경 외(2004), 김성욱(2004), Loewenberg and Dolgoff(1996), Reamer(1999), Congress(1999).
- 2) 김기덕(2004)은 “한국의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교과서 분석”에서 사회복지 가치나 윤리 및 철학 등이 한국사회복지학에서 논의되고 발달해 온 역사가 일천하다고 평가한다. 그는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사회사업의 전문적 실천을 배경으로 하여 수입되었다고 지적한다. 즉, 국내에 소개된 거의 모든 교과서들이 사회복지 가치, 윤리 및 철학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를 담은 전문 학술지라기보다는 한국사회복지대학교 교육협회의 교과목 지침을 따른 교과서를 염두 해 두고 만들어진 것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다소 논의의 수준이 높은 영역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향후 한국적 사회복지의 실정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윤리 및 철학의 모색은 이 같은 현행 교과서들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방향과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사회복지의 중요한 영역과 역할을 수행해 온 한국 기독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혹은 단체의 약 60% 이상이 기독교 계통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숱한 기독교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분야의 학자, 기독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전국 각처에서 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는 근대 사회복지 이념이나 철학 그리고 이론과 실천모델을 소개하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국내에서 사회사업이라는 전문직이 대학에서 처음 시작된 것도 기독교계 사립대학이었다. 이처럼 기독교 계통의 대학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 된지 약 60여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일반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커리큘럼과 그 내용이 다를 바가 없는 실정으로, 아직 기독교 특유의 사회복지나 사회사업의 실제적 모형이 개발되고 실천되지 못한 실정이다<sup>3)</sup>.

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중 기독교인이 60%를 넘는다는 조사결과를 볼 때(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0: 개신교 44%, 카톨릭교 17%) 이렇게 많은 기독교계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해 왔지만, 일반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의 종사와 다른 차이점이나 그 독특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sup>4)</sup>. 이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 사회복지 본질과 정신에 충실하며 동시에 윤리

---

3)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회사회사업이나 기독교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이론과 실천적 근거 및 실천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2년에 개설된 천안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에 박사과정으로 '기독교 복지학'이 개설되었다. 아마 박사과정의 단일학과로는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내,외에서 이미 사회복지학이나 디아코니아, 또는 실천신학(선교학 포함)이나 사회윤리학의 관점에서 주제를 선정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연구자가 사회복지와 관련한 주제를 개인적인 관심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처음부터 학과과정으로 '기독교 복지학'을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개설된 것이다. 2002년 개설 이후 지금까지 약 50여명의 학생이 연구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많은 성과물은 없지만, 2005년 이후부터 이 분야의 연구와 논문이 준비되고 있는 중에 있다. 앞으로 기독교 사회복지학에 대한 이론이나 실천모델 그리고 실천방안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게 하며, 본 연구도 그러한 작업의 연속선상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적 문제를 매우 강조하는 기독교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윤리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사회복지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절실히 필요하며 의미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즉,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회복지실천을 종사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기독교의 독특한 특성이나 관점에서 사회복지윤리 실천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특성이나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태도가 적용될 때 사회복지 현장에서 윤리실천을 위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 또는 결정과정에 대한 합의가 결여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복잡한 문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어 사회복지 종사자들 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기독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기반으로 일반 사회복지 종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치가 상충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갈등을 일으킬 경우에는 기독교 사회복지 종사자는 업무수행에 윤리적 긴장과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윤리적인 선택과 결단이 요구된다.

나아가 기독교계가 선교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를 수행하더라도 바람직한 윤리 행위를 드러내지 못할 때는 오히려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를 수행하는 선교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기독교가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윤리가 왜 필요한가를 제기해주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복지를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든 아니면 실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든 기독교 사회복지 종사자 모두에게 기독교 사회복지윤리 정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sup>5)</sup>.

- 
- 4) 기독교 사회복지계의 특성을 지금의 상황에서 평가한다면 일반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에 비하여 원장이나 총무나 직원이 기독교인이거나 혹은 후원재단이 기독교 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종교적 행위가 비교적 자유로운 것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5) 강춘근(2004)은 기독교 사회복지를 추구하며 종사하는 사람들과 일반 사회복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윤리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실제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특별한 차이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할 것이며, 만일 사회복지 윤리를 실천하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기독교 사회복지의 연구와 실천 의의가 약화될 것이라고 이미 주장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독교 사회복지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기독교 사회복지윤리에 대한 논의를 펼침으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 윤리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모색하고자한다<sup>6)</sup>.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삶을 내용으로 하고 또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윤리적 방향이나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며, 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쟁점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들은 본 연구를 너무 복잡하게 하고 논점을 흐릴 수 있기에 원칙론적인 측면만 피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윤리 실천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 무엇이며, 또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윤리 실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그 기초와 방향성을 모색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 전문직 가치와 윤리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의 토대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 연구자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먼저, I장에서는 사회복지윤리 문제에 대한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을 제시하고, II장에서는 기독교 사회복지윤리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기독교 윤리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사회복지실천 윤리를 살펴보고, IV장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의사결정 토대와 의사결정과정을 고찰해 볼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의 토대 위에 V장에서는 기독교 사회복지윤리 실천을 위한 적용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VI장에서는 기독교 사회복지윤리 실천과 관련한 제안과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

6) 세계관이란 보통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로서 이해되고 있으며,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을 바탕으로 신앙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지적활동과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 또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상황에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준거틀을 제공한다. 만약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않다면 세속주의나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일반 사회복지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 II. 기독교 사회복지윤리 연구의 필요성

### 1. 기독교 사회복지의 본질과 목적

기독교 사회복지의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주요 덕목이자 의무와 책임감으로 실천되어 왔다. 또 기독교 사회복지의 초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결핍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사회정책이나 혹은 사회복지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신약성서의 '디아코니아'(Diakonia)를 현대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나 복지사회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적합한 용어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강춘근, 2004: 47).

특히 기독교 사회복지의 성서의 가르침과 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으로부터 출발되었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라는 장을 통하여 많은 활동이 수행되어져 왔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직무는 예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사회복지실천을 반복하는데 있다. 또 기독교 사회복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준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출발하며, 그 사랑이 적용되는 환경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기독교 사회복지의 모든 고통과 곤경의 원초적인 이유와 궁극적인 해결점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복지의 인간의 결핍을 보상하므로 보다 나은 사회를 구현하려는 사회단체의 자선이나 봉사활동과는 구별된다. 왜냐하면 기독교 사회복지의 '하나님 나라'라는 영적인 차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독교 사회복지의 인간은 신체적이고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데 집중하는 일반 복지와는 달리 인간의 정신과 영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복지의 의미를 지니지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구원까지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그 목표로 한다.

이처럼 기독교 사회복지의 일반 사회복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목표와 추구하는 가치관 그리고 서비스 내용 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지만,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 또 다른 가치관에 있어서 기독교 사회복지의 일반 사회복지와 엄격히 구별된다. 즉, 일반 사회복지가 인간의 결핍을 보상하는 것 자체에 그 목적을 둔다든지, 자선과 보편적인 인간애 혹은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앞세운다면, 기독교 사회복지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정신을 기초로 하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 2. 기독교 사회복지윤리 연구의 필요성

앞에서 기독교 사회복지의 일반 사회복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며 그리고 가치관의 독특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복지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실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 종사자가 실천 현장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선택할 때, 클라이언트, 동료, 기관,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의무들이 대립할 때 아무런 고민이나 갈등 없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러한 논의가 필요치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회복지 종사자가 사회복지윤리를 실천한다면 기독교의 가치와 윤리에 맞는 규범과 행동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독교 사회복지윤리(Christian Social Work Ethics)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일반 사회복지윤리(Social Work Ethics)가 인간의 존엄성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방향과 가치판단의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이효선, 2003: 15)<sup>7)</sup>. 그러나 기독교

7) 리머(Reamer, 1995: 27-41)는 윤리강령이 가치갈등을 해소하며, 사회복지윤리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윤리강령을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윤리의 필요성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가 자신의 가치와 클라이언트, 지역주민, 동료전문가, 슈퍼바이저 등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 사이에



교 사회복지윤리는 사회복지가 근거하고 있는 가치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윤리 원칙과 같은 도덕적 기술들을 성경에서 제시하는 규범들의 빛 안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복지 윤리는 사회복지윤리의 규범을 기독교에서 찾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기독교 사회복지윤리를 기독교 윤리 실천 행위에서 찾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독교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윤리 규범 뿐 만 아니라 성서가 가르치는 가치와 규범이 더 중요하게 요구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기독교 사회복지윤리의 필요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 사회복지계의 현실적인 측면이다. 앞서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한국 기독교계는 근대사회복지 이념이나 철학 그리고 이론과 실천모델을 소개하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으며, 또 현실적으로 많은 기독교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전국 각처의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의미 있게 수행해 왔다. 그러나 기독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기독교적 가치나 윤리의 틀 안에서 사회복지실천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으며 또 수행해 왔는가 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둘째는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가치의 독특성 측면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사회복지의 일반 사회복지와 본질적으로 다른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고 그리고 가치관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복지 실천 주체이면서 객체인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실천이 수행되어지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sup>8)</sup>.

---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에 관해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둘째, 윤리적 딜레마를 확인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가치들 사이의 관계정위 또는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복지의 현행 주류 가치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성찰하고 나아가서 시대적 조류에 맞는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복지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실천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

- 8)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윤리를 실천할 때 인간과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먼저, 사회복지윤리를 실천하는 주체와 객체인 인간에 대한 이해인데, 성서가 가르치는 인간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타락한 존재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된 존재일 뿐만

특히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이 수행되어지는 현장인 세상을 다른 어떤 피조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가치의 독특성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하며,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윤리를 실천해야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의 삶과의 관련성 속에서 다루어지며, 또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고, 이러한 삶은 현실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세상의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은 독특한 입장에서 서 있기 때문이다<sup>9)</sup>.

그러므로 사회복지윤리 실천을 기독교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복지윤리를 실천하는데 요구되는 행동의

---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 이해의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처럼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도 다르다. 기독교인은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세상을 거부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있고, 또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한다. 특히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해야 할 기독교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현장은 기독교의 영역인 종교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사상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성숙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있다면 사회복지실천 현장도 그리스도의 주권영역이 나타나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

- 9) 필자는 이미 기독교 사회복지학의 이론적 틀로서 기독교 세계관이 제공하는 실제적인 틀을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구조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는데, 이것을 세상의 이해와 관련하여 본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죄악이 관영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행함만으로는 이 세상에 선이 이뤄질 수 없으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과 실천은 결국 한계가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이런 세상과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통하여 재공정 하심으로 인간 또한 그런 하나님의 재공정에 따라 세상을 긍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의 성경적 근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 주셨다는 것(요 3:16), 우리의 육신과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세상에 파송 받아 섬기고 봉사케 했다는 점 등에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에 따르는 가치와 윤리가 접근이 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질, 내용, 방향성, 목표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사회 복지계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윤리 실천을 강조하며 연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III. 기독교 윤리와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윤리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기독교 사회복지윤리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기독교 사회복지윤리 실천을 위한 기초적인 이해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기독교 사회복지실천 윤리를 위한 기독교 윤리의 가치와 특징을 살펴보고 이어서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윤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기독교 윤리의 가치와 특징

기독교 사회복지는 기독교적 가치와 정신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실현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사회복지와 그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사회복지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기반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사회복지 종사자는 기독교 사회복지의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독교적 가치와 윤리의 토대위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독교 윤리의 기초로서의 가치와 기독교 윤리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앞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에 전개될 기독교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윤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는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 1) 기독교 윤리의 기초로서의 가치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에서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

은 없고, 모든 가치는 시간과 장소에 특히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에 반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실천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즉,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과연 어떤 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며, 가치의 본질과 근거는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런 것은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되는 가치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질문이다. 무엇보다 기독교 가치관은 상대주의적인 시대가 운에서도 절대적인 가치의 원천과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며, 기독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sup>10)</sup>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독교 윤리는 가치결정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설명에서부터 가치에 관한 질문이 시작 된다<sup>11)</sup>.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가치는 궁극적으로 오직 성경기사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며, 동시에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 결정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다(Paul Ramsey, 1950: 277; 재인용, Stanly Grenz, 2004: 303).

이런 기독교 원리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가치의 원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다<sup>12)</sup>.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은 선한 것이며 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악이고,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선악과 정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기독교 윤리 가치의 기본이다. 또 이러한 기독교 가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유익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유익하지 않거나 방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보는데(Ladd, 1985,

10) 여기서 “절대적”이라는 말은 변함이 없으며 다른 것들과 비교되지 않고 그것이 내적 정합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판단의 근거와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11)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선언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가치에 관한 윤리적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12) 이 세상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은 없고 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지고 점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러했거나와 오늘날과 같은 상대주의적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런 의미의 절대적인 분이시며, 따라서 하나님의 뜻도 절대적이라고 여긴다.

38-340), 이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에 근거한 판단이다.

따라서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되는 가치는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절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선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지게 되며 기독교 사회복지를 수행하는데 그 내용을 결정하고 또한 윤리적 의사결정과정과 결정지침에 대한 질과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 2) 기독교 윤리의 성격과 특징

기독교 윤리라는 말은 ‘기독교’와 ‘윤리’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합리성에 의해 지배되는 윤리와 합리성에 의해 지배받을 필요가 없는 자기희생이라는 독특한 행동원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독교 윤리라는 용어는 합리적인 보편성과 기독교리는 특수성을 종합하는 말이다 (Gustafson, 1975: 167). 다시 말해 기독교 윤리는 합리적인 보편성을 추구하는 일반윤리와 마찬가지로 인간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해 연구하며, 인간의 기본관계의 책임적 구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와 일반 윤리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윤리와 일반윤리는 궁극적으로 같은 것, 즉 인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에 적절하게 응답하는 것 또는 신적인 뜻에 따라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윤리적 성찰을 할 때 사실상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 한다(Grenz, 2001).

또 기독교 윤리는 인간존재를 ‘선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인간 자아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반 윤리와는 완전히 다른 출발점을 가진다<sup>13)</sup>. 나아가 기독교 윤리는 그 기본적인 성격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에

13) 이 세상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은 없고 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지고 점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러했거니와 오늘날과 같은 상대주의적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런 의미의 절대적인 분이시며, 따라서 하나님의 뜻도 절대적이라고 여긴다.

서 끝난다. 따라서 일반 윤리가 필연적으로 인간 중심적(human-centered)이라면(Stanley Grenz, 2001: 256-257)<sup>14)</sup>, 기독교 윤리는 철두철미하게 신 중심적(God-centered)이다. 또 기독교 윤리는 일반윤리와 동기부여의 원천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기독교 윤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혹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신앙이 그 윤리적 동기를 부여하는데 반해, 일반적인 윤리는 이러한 신앙경험과는 다른 윤리적 근거에 동기화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독교 윤리는 일차적으로 사람들의 필요, 관습, 계약 또는 어떤 당위적 규범에서 추론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기초 한다<sup>15)</sup>. 그래서 Norman Geisler(노르만 가이슬러)는 성경은 기독교 진리와 도덕적 의무에서 불가결한 지식을 제공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성경 이외의 그 어떤 것도 기독교 윤리의 기초를 삼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1999: 16-21)<sup>16)</sup>.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분명 성서윤리와 다르다. 왜냐하면 성서는

14) Grenz(2001)는 일반윤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인간중심적 경향의 핵심적인 양상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는데, 먼저 인간의 독특한 성격에 대해 인간중심적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윤리적 활동의 목적과 토대를 인간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5) 기독교 윤리가 윤리의 토대를 성경에서 구하지만 그렇다고 성서윤리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서윤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분석 체계화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윤리는 일반윤리학이나 사회과학과 같은 여러 학문이나 성서 외의 여러 요소를 검토 보완하면서 윤리문제에 대한 판단을 시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똑 같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독교 윤리에서 규범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다른 어떤 것보다 권위 있는 표준이 된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을 오늘날의 현실에 다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할 수 없지만 윤리판단에서 규범적인 성격을 성경이 갖지 않는다면 그 윤리는 기독교 윤리가 아닐 것이다.

16) 노르만 가이슬러(1999)는 자신의 책 『기독교 윤리학』에서 기독교 윤리의 특성을 5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기독교 윤리는 불변하는 자신의 도덕적 속성에 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에 토대를 두고 있다. 둘째, 하나님의 불변하는 도덕적 속성에 뿌리를 둔 기독교 윤리는 절대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셋째,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토대를 두고 있다. 넷째, 기독교 윤리는 규정적이다. 기독교 윤리는 현재의 상태가 아닌 당위와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오늘의 현실을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영구불변의 도덕적 처방전은 아니기 때문이다(정중훈, 2003: 202). 따라서 어떤 기독교 윤리적 탐구라 할지라도 현실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본문이 현대인에게 말을 건네주고 의미를 부여해 주는 데 실패할 것이다. 따라서 성경본문과 사회적 상황은 상호 교호적 관계에 놓여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해석해 주는 관계에 놓여있다(최재선, 1991: 107).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환희가 넘쳐나게 만드는 데 합당한 행동원칙으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준수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준수한다는 동기에 더 비중을 둔다.

그러나 윤리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기독교 윤리를 너무 의무론적으로만 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 윤리는 의무론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목적론적인 측면도 동시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행동을 의무론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자리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예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은 의무론적인 측면에서 법을 지키는 ‘시민’으로서의 행위로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응답’으로서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고 니버(Niebuher, 60-61, 97, 130-131, 167; 김희수, 2004:39)는 지적하였다.

또 기독교 윤리는 상황윤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상

---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의 기준 속에서는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준 속에서 자신들의 윤리적 의무를 발견한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도덕적 속성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다. 다섯째, 기독교 윤리는 의무론적이다.

황윤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에 합당한 행동’을 할 것을 주장하는데(Fletcher, 1966), 성경과 기독교 윤리는 분명히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기독교 윤리가 이러한 상황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윤리는 율법주의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판단에 있어 상황에 부합되는 상대성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독교 윤리는 어느 한 방향에서만 특징지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목적론적인 특징, 의무론적인 특징, 응답론적인 특징, 상황윤리적인 특징 등이 서로 혼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는 형태론적 성격 혹은 방법론적인 모델을 어느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며, 이것이 기독교 윤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2.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윤리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가치로 삼고 실천하는 학문이다. 또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윤리이다. 이처럼 가치가 무엇이 좋고 싫은가를 다루는 것이라면, 가치에 대하여 옹고 그릇의 규범적 기준을 부여하는 것이 윤리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윤리에서 가치의 문제는 이 안에서 윤리적 원칙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즉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드러나는 윤리는 인간존엄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지침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 1) 사회복지실천 가치

사회복지실천은 가치를 기반으로 동기화되거나 기능화 되기에 가치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가치라는 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강함, 승리, 혹은 그럴만함”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valere’로부터 나온



것인데(Meinert, 1980: 5; 재인용, Reamer, 1995), Webster 사전에서는 가치를 “본래적으로 가치 있는 바람직한 ...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범모는 “가치란 행동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해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 가치는 언제나 선택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을 취하느냐를 결정하는데 작용하는 것으로 하나의 의지작용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990: 23). William Gordon은 가치란 가치 있게 여기다(value)라는 동사와 선호하다(prefer)라는 동사를 동의어로 보면서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선호되는 것을 의미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Gordon, 1965: 33; 재인용, Reamer, 1995: 28).

이처럼 가치는 사람들에 의해 가치 있다(의미 있다), 혹은 없다고 평가되는 것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에만 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가치는 인간의 선호 또는 선택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바람직스러움의 기준’을 의미하는 가치는 그 자체가 수많은 위계질서로 구성되어 있어 수단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로 나누어 가치관과 비교되어 설명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가치는 감정적으로 무엇을 바랄 것인가에 대한 개념으로 역사 속에서 경험적으로 얻어져 대중이나 집단에 의하여 구성되는 행동패턴의 조직화와 구조화에 대한 의미를 제공한다. 나아가 가치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유쾌와 불쾌, 적절과 부적절 등 인생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지침(Ritzer, Kammeyer & Yetman, 1979: 53; 재인용, 이효선, 2003:22)이며,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위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점을 말한다.

따라서 가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리고 행동을 지배하는 중요한 ‘감정’ 체계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힘이며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가 사회복지실천에 드러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본질적인 가치전제가 깔려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존엄과 특성에 대한 존중이며, 또 하나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대한 신념이다.

이에 대해 리머는 이에 대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치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 즉 중요성에 대해 네 가지로 설명한다(Reamer, 1999: 9-13; 재인용, 김기덕, 2002: 167-169). 첫째, 사회복지 가치는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임무와 목표를 제시하여 준다. 둘째, 사회복지 가치는 사회복지 종사자 혹은 사회복지 조직체가 구체적인 실천 활동에서 어떠한 종류와 성격의 사회적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야 할지를 제시해 준다. 셋째, 사회복지 가치는 다양한 대안들 중 가장 바람직한 개입실천방법을 선택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가치는 개입실천과정에서 초래되는 다양한 윤리적 교착상태와 윤리적 갈등을 분석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이론적 자원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실천 윤리에서 가치문제는 이 안에서 윤리적 원칙들이 선택되고 결정되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윤리적 의사결정론’의 핵심이 당면한 문제 상황과 관련이 있는 윤리적 원칙을 확인하고 이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윤리적 원칙들이 바로 사회복지분야의 핵심가치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기 때문이다.

## 2) 사회복지 가치와 보편윤리와의 관계

가치가 무엇이 좋고 싫은가를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치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규범적 기준을 부여하는 것이 윤리다. 또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행동이나 태도의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구분해 주는 판단기준과 도덕적 가치와 관련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의사결정을 사회복지 윤리라고 한다. 또 사회복지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을 기본가치로 삼고 실천하는 학문이라면, 사회복지윤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방향과 가치판단의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이효선, 2003: 15).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

사상,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한다.

이효선은 사회복지의 가치와 보편윤리와의 관계성을 3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2003: 74-76). 첫째, 사회복지 가치 중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고 우선적으로 다룬다. 인간의 존엄성은 각 사람이 존중받아야 본래적인 존엄성을 지닌 독특한 개념으로, 보편 윤리의 ‘목적 자체로서의 인간관’과 같은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 보편윤리에서는 인간성을 우리 자신이나 타인에 있어서 단지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며 항상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복지 가치의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과 사회복지 인간관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개인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자율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편 윤리의 ‘의지와 자율’ 가치관과 추구하는 바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 가치인 ‘사회연대성 원리’는 이웃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요구하는 것으로 곧 인간이 상호 주관적으로 공유된 생활양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보편윤리의 유대성의 원리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이 사회적 존재이며 서로 상호적 관계를 통해 사회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편윤리의 유대성의 원리와 사회복지의 가치인 사회연대성의 원리는 결국 개인은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간에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원리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가치가 윤리와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윤리가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윤리의 평가는 분석적이고 종합하고 고쳐줌으로써 정리하는 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이 가치를 기반으로 할 때는 반드시 윤리에 있어서 가치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가치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이는 사회복지실천 기반이 흔들리

거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 IV.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의사결정토대와 의사결정과정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할 때 이루어지는 윤리적 의사결정은 특정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행동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아무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대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며, 때로는 가치들 간의 갈등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갈등상황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토대가 무엇이며, 또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윤리적 의사결정의 토대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 종사자가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토대를 필요로 한다. 의사결정이란 결국 상충되는 가치의 선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가 윤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는 윤리적 행위를 위해 구체적인 지침인 규칙(rule)에 의거해 결정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 또 규칙은 행위를 위한 보다 일반적인 지침인 원칙(principle)에 의해 정당화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판단과 규칙과 원칙 모두는 윤리이론(ethical theory)에 의해 지지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윤리적 결정이 규칙과 원칙과 이론에 근거해 이루어졌을 때 사회복지 종사자의 행동방침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김상균·오정수·유채영, 2003:155-156).

##### 1) 윤리이론과 윤리 원칙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덕의무론(deontological theory)과 도덕목적론(teleological theory)의 두 가지 윤리이론을 준거틀로 사용한다. 그리고 실제 사회복지 종사자는 이 두 이론을 병합해 사용한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가 본질상 도덕의무론적 입장에 의해 구현되어야 하지만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한 많은 실천가들은 도덕목적론적 사고에 입각해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김상균·오정수·유채영, 2003:159). 그러나 윤리적 의사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토대로서 윤리이론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론만으로는 결정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중간단계에 위치하는 규칙과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Beauchamp & Childress, 1994: 14). 또 규칙은 윤리적 기준으로서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NASW 윤리강령 및 각 나라의 윤리 강령을 참조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 및 기관의 정책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김상균·오정수·유채영, 2003:156-160).

한편, 사회복지에서 윤리적 원칙은 사회복지 종사자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체계적이고 신중한 윤리적 결정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의 주된 원칙에 근거해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어 나간다. 첫 번째 원칙은 적극적 의무인 선행의 원칙으로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칙은 소극적 의무인 악행금지 원칙으로서 해를 야기하지 않는 것이다(Reamer, 1995; 재인용, 김상균·오정수·유채영, 163). 이렇게 윤리적 원칙은 가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추론에 의해 가치의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며, 가장 중요한 윤리적 원칙으로부터 그보다 덜 중요한 윤리적 원칙의 순서로 서열을 매김으로써 우선순위를 제시한다(김상균·오정수·유채영, 2003:164-166)<sup>17)</sup>.

그러나 ‘윤리적 원칙 심사표’는 결정을 시사할 뿐이지 강요하지는 않는다.

17) 이러한 윤리적 원칙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명보호의 원칙 2.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3.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4. 최소 손실의 원칙. 5. 삶의 질의 원칙. 6. 사생활보호와 비밀 보장의 원칙. 7. 진실성과 정보개방의 원칙이 있다.

윤리적 원칙이 서열화가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 공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직적인 구조를 따르는 이러한 해결책이 더 나은 윤리적 결정을 보장한다는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원칙은 사회복지 종사자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윤리적 기준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체계적이고 신중한 윤리적 결정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 2) 윤리적 결정지침

윤리적 결정지침은 상충하는 가치와 의무들의 서열화를 시도함으로써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실무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의 본질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유사한 전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윤리적 딜레마를 직면하게 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윤리적 결정은 다를 수 있다. 실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할 때는 상황을 분석한 후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상충하는 두 가지 가치에 근거하는 두 가지 행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가치는 모두 도덕적으로 옳으며 전문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동시에 수행될 수 없을 때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한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논리적 접근방법보다는 자신의 실천지혜에 의해 결정을 내리거나(Walden, Wolock & Demone, 1990; 재인용, 김상균·오정수·유채영, 2003:147) 또 윤리강령<sup>18)</sup>을 근거로

18)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전문적인 행동의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대안이나 행동을 윤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특정상황을 검토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것은 실천대안들을 선택하게 하는 윤리적 필터 혹은 여가장치로서 기능이 있을 뿐이다. 가령 NASW 윤리강령(1996)에 보면 윤리강령이 윤리적 행위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윤리강령이 모든 윤리적 이슈나 논쟁을 해결할 수도 없으며,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선택이 되도록 노력하는 충분함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윤리강령은 전문가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가치, 윤리적 원칙, 그리고 윤리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

결정을 내린다(Congress, 1992: 157-169).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신속한 결정을 원하는 기관의 압력이나 결정에 필요한 시간 부족 때문에 충분한 숙고 없이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행동방침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윤리적 의사결정은 직관보다는 합리적 사고에 근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사회복지 문헌이나 학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윤리적 결정 준거틀<sup>19)</sup>을 참고하며 고민할 때 사회복지 종사자가 비교적 직관보다는 인식론적 접근에 의해서 보다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게 된다.

리머는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결정에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규범적 윤리이론인 도덕의무론과 도덕목적론의 강점과 한계에 대해 평가하고, 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상충하는 의무들 중 선택을 하여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6가지 결정지침을 지워스(Gewirth)의 윤리적 결정 접근방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Reamer, 1995: 48-81; 재인용, 이효선, 2003:168-170). 이러한 윤리적 결정원칙은 상충하는 가치와 의무들의 서열화를 시도함으로써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실무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의 본질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 것이다. 다음은 사회복지윤리학자 가운데 의사결정론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 원칙이다(Reamer, 1999:60-64).

### <표 1> 리머의 윤리적 결정지침

고 있다.

19) 윤리적 의사결정 원칙과 과정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기덕(2004), 이효선(2003: 167-182), 김상관·오정수·유채영(2003: 147-155), Reamer(1999: 104-125)를 참조하시오.

1	인간 활동의 필수적인 전제조건들(예를 들어, 생명 그 자체, 건강, 음식물, 주거지, 정신적 균형상태 등)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규범들은 거짓 정보제공이나 비밀의 폭로, 그리고 오락, 교육, 부 등과 같은 부차적인 것들의 위협과 관련된 조항에 우선한다.
2	어떤 개인이 가진 기본적인 안녕(인간 활동에 필수적인 수단이자 조건을 포함해서)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에 우선한다.
3	어떤 개인이 가지는 자기결정에 관한 권리는 자신의 기본적인 안녕에 대한 권리에 우선한다.
4	자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 동의한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이러한 법률, 규칙, 규정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5	개인이 가지는 안녕에 대한 권리가 자신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단체의 법률, 규칙, 규정, 협정 등과 충돌할 때에는 행복에 대한 권리가 우선한다.
6	기아 등과 같은 기본적인 해악을 예방해야 된다는 의무와 주택, 교육, 공적 부조 등과 같은 공공재(public goods)를 제공해야 된다는 의무는 개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전적으로 가지는 처분권에 우선한다.

## 2. 윤리적 의사결정과정(ethical decision making)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이란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s)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회복지 종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행위의 대안들 가운데 가장 윤리적인 것과 관련하여 내리는 윤리적 선택행위를 의미한다(Reamer, 1999). 이때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공식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특성이 존재한다<sup>20)</sup>. 아무리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사회복지 종사자라 할지라도 어떤 특정

20) 김기덕(2002: 253-257)은 다양한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특성을 8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윤리적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이성



한 사례에 대한 윤리적 결정을 이끌어 주는 윤리적 원칙이나 기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윤리적 딜레마의 여러 측면이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련의 단계를 밟아나감으로써 체계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명료하게 체계화된 단계를 밟음으로써 사회복지 종사자는 보다 바람직한 윤리적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는데, 다음은 리머의 윤리결정 과정의 단계별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Reamer, 1999: 64-65).

그러나 이러한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은 이론, 원칙, 규칙, 가치 등을 고려한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사회복지 종사자가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표 2>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과정

연번	내 용
1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복지 실천 가치와 의무를 포함하여, 윤리적 이슈를 규명한다.
2	윤리적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 조직을 규명한다.

적인 작업이다. 둘째, 윤리적 의사결정은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련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셋째,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에는 앞서 언급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요인과 함께 심리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넷째, 윤리적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가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절충이다. 다섯째,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은 '결정절차(the process)'와 '결정원칙(the principles)'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여섯째, 윤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주어진 윤리적인 측면만을 고찰하는 것은 아니다. 일곱째, 윤리적 결정이 합리적,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도 그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의사결정자가 가지는 자유재량의 요소가 있다. 윤리적 의사결정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게 주어진 원칙, 규칙, 규정을 주어진 사례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작업이 결코 아니다. 여덟째,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은 한 명의 의사결정자가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전체적으로 참가한 결과이다.

3	실행가능한 모든 행동방침과 각각의 경우에 포함되는 참여자들 그리고 각 경우의 잠재적 이익과 위험을 잠정적으로 규명한다.
4	다음의 관련사항을 고려하여, 각각의 행동방침을 찬성 또는 반대 하는 이유와 근거를 철저하게 검토 한다. 1) 윤리이론, 원칙, 지침들 2) 윤리강령과 법적 원칙들 3) 사회복지실천 이론과 원칙들 4) 개인적 가치들(종교적, 문화적, 인종적 가치와 정치적 이념 포함), 특히 자신의 가치와 갈등을 일으키는 가치들
5	동료나 적당한 전문가와 상담한다: 기관의 직원, 슈퍼바이저, 기관 의 행정가, 변호사, 윤리학자 등
6	결정을 내리고 의사결정과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7	결정을 감시, 평가하고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다.

## V. 기독교 사회복지윤리 실천을 위한 방향 모색

앞에서 언급한 사회복지의 실천가치와 윤리 그리고 의사결정 원칙과 그 과정은 기독교 사회복지 종사자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독교 사회복지 종사자는 대부분 전문적 가치와 윤리를 수용할 수 있지만 신앙적 가치와 민감한 문제들은 오히려 신앙적 가치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신앙적 가치와 윤리를 기초로 하여 기독교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의 실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 기독교 사회복지활동의 기본적 가치

사회복지사업은 가치와 지식과 기술을 3대 기반으로 한다. 여기서 가치는

사회복지사업의 세 가지 기반 가운데 하나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이는 사회복지실천이나 사회복지사업의 기반이 흔들리거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독교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기독교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지는 그 목표와 추구하는 가치관 그리고 서비스 내용면에서 공유할 수 있는 가치기반들이 있다. 특히 사회복지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존중, 사회정의, 봉사, 인간관계의 중요성, 정직과 성실, 능력이라는 몇 가지의 핵심적인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적인 가치는 사회복지의 독특한 목적과 관점의 기반이 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1)에는 이렇게 천명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와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 정의와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가치는 첫째,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 둘째,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의 존중, 셋째, 기회균등의 원리, 넷째, 사회통합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다(Friedlander, 1975: 2-7, 재 인용, 장인협, 1992: 41). 이처럼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적인 가치가 인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신뢰이며 모든 인간이 가치적 존재로서 인정되고 사회복지실천 서비스가 인간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내면화시키고, 또 기독교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은 기

본적으로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실천을 요청하고 있으며, 또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에서는 기독교 세계관과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되는 사회복지활동의 기본적 가치를 NASW(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1996)에 나타나 있는 것을 검토하여 설명하고자 한다(Reamer, 1999: 267-269; Congress, 2005: 33-36).

첫째, 사회복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봉사(Service)를 제공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식과 가치, 기술을 사람들을 원조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한다. 물질적 보상 없이 전문적 기술을 자발적으로 할애하도록 격려한다.

둘째는 사회정의(Social Justice)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사회적 불의에 도전한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집단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활동하고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다. 사회복지를 통한 사회변화 노력은 우선적으로 빈곤, 실업, 차별, 기타 사회적 불의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활동들은 억압과 문화적이고 차별성에 관한 지식과 감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탐구한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 필요한 정보, 서비스 또는 자원에의 접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셋째는 인간 존엄성과 가치존중(Dignity and Worth of the Person)이다. 인간을 돕는 사회복지의 인간적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한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각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개인적 차이와 문화적, 인종적 차이를 존중한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증진시키며,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고 스스로 변화할 능력과 기회를 함양하도록 한다. 또 클라이언트와 사회에 대한 이중적 책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그들의 전문적 가치와 윤리적 원칙, 윤리기준과 일치시키면서 사회적으로도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노력 한다.

네째는 인간관계의 중요성(Importance of Human Relationships)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사람들 간의 관계는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며, 사람들을 원조과정에 파트너로 참여시킨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개인과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하고 회복, 유,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 있는 노력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강화한다.

다섯째, 성실(Integrity)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하며, 끊임없이 전문직의 사명, 가치, 윤리원칙, 윤리기준을 항상 숙지하여 이와 일치되게 실천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정직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며 자신들의 소속된 조직의 입장에서 윤리적 실천을 증진시킨다.

여섯째, 능력(Competence)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능력의 범위에서 실천하고, 그들의 직업적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킨다. 또 끊임없이 전문지식과 기술을 증진시키려 노력하고 그것을 실천에 적용시키려 노력한다. 즉, 사회복지 종사자는 전문직의 기본 지식에 기여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복지 활동의 기본적 가치인 '봉사'의 가치는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이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신 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봉사 행위이다. 또 예수 자신의 말씀과 행위는 분명히 봉사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의 원인까지도 직접 담당하고자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셔서 죄와 악을 대적하여 이기신 분이시다. 예수는 이러한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고통 받는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였다. 특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마태복음 20:28)고 하신 말씀은 봉사에 대한 예수의 삶의 모범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 '사회정의'의 가치 역시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가치이다. 위의 봉사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 반드시 드러나

야 하는 가치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미가 6:8).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빈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야모스 2:6-8). 이러한 말씀은 성경이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고발하고 공의와 정의의 외침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존엄성’과 가치의 존중은 기독교 사회복지의 기본이념이기도 하다. 즉 기독교 사회복지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 남자나 여자, 인종과 피부색 그리고 국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성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그리고 인권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십자가의 희생적인 정신과 이웃사랑 정신과 일치한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눅 10:27).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눅 6:27).

나아가 ‘성실’의 가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이주고 ....”(누가복음 10:30-35)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헌신적이고 성실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끝으로 ‘능력’의 가치가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일해야 하며, 자신의 전문적 기술을 향상시키려는데 노력해야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네가 작

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마태복음 25:21,23)로 연결하여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은 이러한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는가를 항상 점검하고, 말씀과 실천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2. 기독교 사회복지윤리 실천을 위한 적용과 방향

앞에서 소개된 사회복지 종사자의 윤리적 판단과 결정지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연은총으로 부여하신 인간내면의 양심과 도덕률에 기초한다. 존 칼빈(John Calvin)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도덕적 율법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율법은 자연법의 증거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새기신 양심의 증거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즉, 인간정신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탁월한 능력들은 그것이 신성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영혼불멸성과 인격적 실존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인간의 근원적 죄성과 타락으로 인하여 선악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흐려져 있다<sup>21)</sup>.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에 기초한 확고한 윤리의식이 없으면 위와 같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원칙과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실천 상황에서 가치의 옳고 그름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흔들리게 된다. 특히 가치상대주의와 실용주의 경향이 풍미하는 현대사회 내에서 종교적 관점이나 의무론적

21) 칼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내면적인 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자연법은 희미해져서 그 내용을 명백하게 알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내면적인 법을 새겨주셨지만 타락한 후에 이것은 오류의 흑암에 덮여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타락 이후에 자연법은 왜곡되었고 불명확해졌으므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자연법에서 거꾸로 도덕법을 알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자연법과 도덕법은 구별된다. 자연법은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공통적인 본성이다.

윤리설의 관점보다는 공리주의적 관점이 우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에서는 확고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가치와 윤리의 적용이 요청된다(오정수, 2003:138-139).

따라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 종사자는 앞에서 언급한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기반에 상충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상충하는 가치가 발생한다면 어느 것이 우선적이며, 혹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성경으로 삼는다. 그런데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직 윤리강령과 지침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 적용하고 실천할 때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치우치게 된다. 그리고 기독교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를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윤리적 판단과 결정을 할 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규범적인 차원을 지향해야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 윤리가 강조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윤리적 판단과 선택이 요구될 때 종교적 가치가 사회사업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N. Baum 외 3인, 1987; 재인용, 정무성, 1993: 67-68)<sup>22)</sup>.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전문직의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과 윤리적 결정원칙과 지침 그리고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을 적용하되 그러한 원칙과 지침들 그리고 갈등상황에 처할 때 성경에 비추어 정당한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회복지 종사자는 행동의 판단기준을 사회복지실천의 핵심가치로 여기는 인간에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도록 요구하는 바의 것과 관련하여 접근하며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의 독

22) 이 연구에서는 종교적 가치가 사회사업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낙태, 동성연애, 안락사 문제등과 같이 민감한 문제들은 신앙적 가치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다른 영역에서는 신앙적 가치보다는 전문적 가치와 규범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Loewenberg(1988)의 제 1부를 참조하시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sup>23)</sup>, 이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복지 종사자는 기독교 가치와 정신으로 기독교 원칙에 따른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클라이언트를 접근할 때도 항상 기독교 원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현실 그리고 사회질서가 기독교 원리와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질서 속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정무성, 1993: 67-69)<sup>24)</sup>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기독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인간과 사회의 변화에 맞춰 변화하여야 하며, 이 변화에 맞춰 기독교 가치관에

23) 이러한 개념의 원천에는 Arthur F. Holmes(1993)가 천명한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한 것에 근거한 것임을 밝힌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인생과 역사가, 선하고 지혜롭고 진능한 창조주에 의해 인식되고 지배된다는 사고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진리가 어디서 발견되든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더 이상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의 본래적 개념이 대부분 상실되었다고 보고, 진리에의 초점 상실, 진리의 보편성의 상실, 진리의 단일성의 상실에서 찾고 있다.

24)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자신을 공식적으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교는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종교적 신앙과 가치에만 영향을 받아 사회사업 실천을 하는 사회사업가가 비교적 적은 것처럼, 직·간접적으로 종교적 가치에 영향을 전혀 안받는 사회사업가도 적다. 신앙인이 아닌 사회사업가 혹은 자신을 인본주의자 무신론자로까지 말하는 사회사업가들도 종교가 자신의 전문직 실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종교가 환상이고 비합리적인 형태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신앙을 가진 클라이언트와 일할 때는 종교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클라이언트 생활에 있어 이 부분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중에 회피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와 사회사업자간의 전문적인 관계에 문제를 야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사회사업가가 어느 정도가 종교인이고 비종교인인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비종교인 사회사업가가 종교성이 강한 클라이언트와 만났을 때, 혹은 신앙인인 사회사업가가 비신앙인 클라이언트를 상담할 때의 상황을 어떻게 다루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근거한 사회복지윤리 실천을 고무하는 정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기독교 사회복지 종사자가 사회복지실천 윤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 윤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에 합당한 행동으로 상황에 개입해야 하며, 이러한 개입은 주어진 상황을 조율하고, 분석하고, 책임적인 자세로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독교 사회복지종사자가 현 상황에 참여하는 일은 일차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조율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적 차원을 더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황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의 핵심인지를 찾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황을 파고들어 그 핵심부에게까지 도달해야 하며, 또 분석을 할 때 어떤 도덕원리가 가장 관건이 되는지를 물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요하는 진정한 윤리적 문제와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 곧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한 반응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때의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 조율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결국 성령의 역동성이 적용될 수 있는 작업으로 이어져 나가야만 한다(Stanley Grenz, 2001: 22-23).

## VI. 나가는 말

본 연구는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의 문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하는 실험적 시도였다. 특히 민간복지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때에, 한국 기독교는 사회복지 발전에 매우 의미 있

는 역할을 해 왔다. 또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에 중요한 위치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독교계가 이제는 보다 책임적인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 전문직 윤리와 관련하여 기독교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것은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매일의 윤리적 문제에 부딪히며 살고 있듯이 기독교 사회복지 종사자도 매일의 윤리문제에 부딪히며 산다. 문제는 기독교 사회복지 종사자가 이러한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직면 했을 때 “이 상황에서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차원에서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는 “이러한 윤리적 선택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자신과 클라이언트, 기관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일이며 영광 돌리는 것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이 항상 제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독교 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복지 교육 현장이나 실천 현장에서 실제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윤리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되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사회복지 종사자가 윤리적 결정지침이나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에 따르는 딜레마 문제를 윤리이론이나 원칙 그리고 규칙에 근거하여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또한 매우 빈약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가 윤리적인 판단과 선택이 요구될 때 종교적 가치가 사회사업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앞으로 기독교 사회복지계의 실증적인 조사와 논의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사회복지윤리와 가치에 대한 연구에 대한 관심과 폭넓은 토론은 기독교계가 사회복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영향력 면에서 볼 때 하나의 이론적 사치가 아니라, 기독교 특유의 사회복지실천이나 교회사회사업의 이론적인 토대를 세워 가는데 매우 중요하며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 특히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이 그 동안 실천은 있었지만 이론이 없었던 문제의식에서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윤리를 접근할 때 기독교 사회복지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복지계 전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기독교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간의 복지확대가 요구될 때 기독교계가 여기에 편승하여 단순히 정부 정책의 지원과 보조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기독교 사회복지계가 전문직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가치가 더 많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책임적인 차원과 반성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윤리를 이슈제기자의 차원에서 더욱 강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 사회복지계가 한국 사회복지 역사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과 또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 차원에 기독교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를 강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아직도 국내에서는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에 대한 논의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윤리적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들과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대두되는 사안에 대해 기독교 사회복지윤리에 대한 반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윤리적 가치와 원칙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윤리강령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의 접근을 위해 기독교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윤리의식 실태조사나 사례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윤리의식과 일반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비교를 통해 윤리실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기독교계 사회복지 종사자가 일반 사회 복지계 종사자들보다 윤리의식이나 결정의 원칙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내려진다면 윤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계의 사회복지실천의 의미는 매우 약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사회 복지계에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고자 할 때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 가치나 윤리가 실천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 전문성 확보는커녕 오히려 선교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앞으로 기독교 사회복지 종사자는 사회복지계의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들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문제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윤리실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가치와 윤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앞으로 영성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기독교 사회복지의 독특성을 잘 드러낼 뿐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가 전문성을 지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춘근 외(2005), 『기독교 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양서원
- 강춘근(2004), “기독교 사회복지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과 학문』 9(2), 기독교학문연구회.
- 강춘근(2003), “빈곤문제와 한국교회의 역할”, 통합연구학회, 『통합연구』, 16(2).
- 강춘근(2001), “사회복지선교를 위한 교회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고수현(2002),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서울, 양지.
- 고수현(2005), 『사회복지실천 윤리와 철학』, 서울, 양서원.
- 김기택(2002), 『사회복지윤리학』, 서울, 나눔의 집.
- 김기택(2004), “한국의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교과서 분석” 『상황과 복지』 17호, 인간과 복지.
- 김기원(2002), 『기독교사회복지론』, 대학출판사.
- 김상균·오정수·유채영(2003),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서울, 나눔출판.
- 김성옥(2004),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서울, 청목출판사.
- 김용일·조흥식·김연옥(1999), 『사회사업실천론』, 서울: 나눔.

- 김희수(2004), 『기독교윤리학의 이론과 방법론』, 서울: 동문선.
- 나학진(1983), 『기독교윤리학』, 서울: 기독교방송.
- 노영상(2001), 『영성과 윤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맹용길(2004), “교회사회사업의 윤리와 가치”, 한국성서대학 세미나 자료.
- 맹용길(1994), 『기독교 윤리학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박원기(1997), 『신학윤리와 사회과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양옥경 외 11인(1993), 『사회복지실천과 윤리』, 서울: 한울아카데미.
- 양옥경 외(2004),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서울: 나눔의 집.
- 오정수(2003), “교회사회사업의 윤리와 가치” 『교회사회사업편람』, 서울: 인간과 복지.
- 유엔인권센터(2005),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이해원 역, 서울: 학지사.
- 이은선(1997), 『칼빈의 신학적 정치 윤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이승구(2003),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 이효선(2003), 『사회복지윤리와 철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장인협(1992),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범모(1990), 『가치관과 교육』, 서울: 배영사.
- 조휘일·이운로(2003),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학지사.
- 정무성(1993), “종교적 신앙과 전문사회사업의 관계”,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기독교사회복지』 3호.
- 정원범(2004), 『신학적 윤리와 현실』, 서울: 쿰란출판사.
- 최재선(1991), 『현대사회와 종교』, 서울: 바울서신사.
- 최현호(2002), 『사회와 인식』, 서울: 형설출판사.
- Banks, Sarah (2001), “Ethics and Values in Social Work”, Palgrave.
- Baum, N, Lahaki, H, Loewenberg, M, and D. Porstowitz (1987), “The Impact of Religious Beliefs on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and Social Policy in Israel*, 1(1).
- Bullis, Ronald K. (2002),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장인협 역,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 Congress, Elaine P. (1999), *Social Work Values and Ethics: Identifying and Resolving Professional Dilemmas*, Thomson Learning,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강선경·김육 공역 (2004), 서울: 시그마프레스.
- Dolgoft, Raph, F. M, Loewenberg Donna Harrington (2005), *Ethical Decisions for*

- Social Work Practice*, Thomson: Brooks/cole.
- Fletcher, Joseph F. (1966), *Situation Ethics: the New Moralit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 Geisler, Norman L. (1999), 『기독교 윤리학』, 위거찬 역(2003),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Gordon, William E. (1965), "Knowledge and Value: Their Distinction and Relationship in Clarifying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10 (3). 32-39.
- Grenz, Stanley J(2001),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신원하 역, 서울: IVP.
- Gustafson, James Moody(1975), *Can Ethics Be Christi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lmes, Arthur F. (1998),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서원모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 Ladd, G. E. (1985),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서울: 여수론, 338-340.
- Loewenberg and Dolgoff(1996), *Ethical Decis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F, E. Peacock Publishers, 김영란 · 박미은 · 서미경 공역(2000), 『사회복지실천윤리』, 서울: 양서원.
- Loewenberg, F. M. (1988), *Religion and Social Work Practice in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Niebuhr, Richard H. (1978), *The Responsible Self*,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Ninomiya, Akie H. (1999), 『사회복지신학』, 전광현 역, 서울: 예영.
- Ramsey, Paul (1950), *Basic Christian Ethic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Rasmussen, Larry L. (1972), *Dietrich Bonhoeffer: Reality and Resistance*, Nashville, Tennessee: Abindon Press.
- Reamer, Frederic G. (1999), *Social Work Values and Ethics*, Columbia university Press, 고미영 · 최경원 · 황숙연 공역(2002), 『사회복지실천윤리』, 서울: 사회복지 실천연구소.
- Schweiker, William (2003),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윤리』, 문시영 역, 서울: 살림.
- Wogaman, J. Philip (1989), *Christian Moral Judgement*,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ABSTRACT

A Study on the Values and Ethics of  
the Christian Social Welfare

Chun Geun Kang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from the viewpoint of Christian, to consider a question on the values and an ethics of Christian social welfare, and also to investigate a direction for an ethical decision making and its guidance. For these point, I would suggest that Christian social welfare has two sides, that is, a real side of Christian social welfare system and a unique side of practical value in Christian social welfare. Especially this study could arrange the character and its feature in christian ethic frame to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a unique that is occupied in Christian social welfare. Moreover I would examine ethical manifesto of social worker as a specialist, ethical decision marking rules and its guidance for the efficient conduct of ethical decision marking rules and its making of social welfare praxis from the viewpoint of Christian. Through this research, I would insist that ethical praxis of Christian social welfare should always check up general social welfare value and ethic correspond with the teachings of the Bible, and then appear to integrated direction to the word and the



praxis. Furthermore, I would emphasize that for the efficient conduct of value and ethic in Christian social welfare must involve in social welfare situation through an action coincide with agape love in all the possible situation of christian ethic absolutely, for this engagement has to apply, in the situation allowed, to harmonize and analysis in responsible attitude. Finally, I would propose to be well-mated question and claim of social welfare in a phase and a role of Christian social welfare system in social welfare generally, and a disputed point and direction following ethical praxis of Christian social welfare.

Key Words: Christian Social Welfare, Christian Social Work Ethics, Social Work Ethics, Ethical decision making, Ethical Dilemmas